

# 삼성·현대차 등 41개사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 동참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 수탁기업 294곳 포함 총 335개사 시범운영 실적따라 각종 인센티브 이영 “중소 14년간 두드림에 결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41개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동참한다. 이들 기업과 함께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수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4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KT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가졌다.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지 않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탁기업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활용해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연동 약정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면 조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시범사업의 골자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과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을 포함해 시범운영 참여기업, 국회의원, 유관 협·단체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영 장관은 “오늘은 중소기업의 14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대상, LG전자, 조흥, 부영주택, 삼성디스플레이, 볼보그룹코리아, 신성델타테크, 엔투비, 포스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카카오, 풍산, LS전선, 포스코케미칼, 오성사, KT, CJ제일제당, 삼성물산,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디씨이솔루션, SK지오센트릭, SK루브리컨츠, 현대상호중공업,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유남전기, LG생활건강, 현대제뉴인, 효성중공업, 경신, 대한전선, 롯데제과,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건설기계, 대덕전자, 지엔에스기술, 제이엠글로벌, 엘에스엠트론, 우일정보기술. (이상 41개사) 자료 : 중소기업부

년간에 걸친 두드림에 답을 드리는 날”이라며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인들 덕분에 납품대금 연동제의 역사적 행보의 시작을 선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시범운영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할 계획”이

라며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확산되어, 중소기업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부가 계속 관심을 갖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위한 지원사업 창구를 중기부로 단일화한 바 있다.

윤수현 부위원장은 “오늘 협약식은 연동계약의 자율적 확산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날”이라며 “연동계약의 확산이 우리나라 하도급거래 관계가 ‘위험전가(risk-shifting)’에서 ‘위험분담(risk-sharing)’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시범운영의 제1호 신청기업인 대상 주식회사의 임정배 대표, 가장 많은 수탁기업과 함께 시범운영에 참여한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이동영 부사장이 참석했다.

행사에선 중기부, 공정위, 시범운영

에 참여하는 위탁기업 30개사와 수탁기업 294곳을 대표해 협약을 체결할 기업 24개사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성실히 협의해 납품대금 연동 대상 및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고, 약정한 바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시범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탁기업의 시범운영 실적에 따라 행정적 혜택을 제공한다. 또 협약 체결 당사자 모두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위탁기업의 시범운영 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지조사면제 ▲장관표창 수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의무고발요청 심의 시 반영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스마트공장 선정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추가로 마련해 연동 약정 체결 기업에 다양한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는 위탁기업 41개사 및 수탁기업 294개사 등 총 335개사가 신청했다. 중기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위탁기업 41개사 모두를 최종 참여기업으로 선정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동참하길 원하는 위탁기업 신청을 상시 접수한다. 상시 접수를 통해 참여하는 기업들도 연동 실적에 따라 중기부와 공정위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중기부 누리집을 참조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중견기업, 수출 확대 위한 범정부 정책지원 절실”

중견련, 수출 중견기업 설문 IPEF참여 등 신통상규범 대응 필요 美 수출 부대비용 급증 ‘애로 1순위’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들의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자금 추가 지원, 수출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종합적인 정책 지원체계 가동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견기업들은 가장 큰 시장중 하나인 미국의 경우 수출 부대비용의 급격한 증가가 ‘애로 1순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내용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미국에 수출하고 있거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18곳을 대상으

로 온라인 설문과 심층 인터뷰를 해 14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대상 중견기업은 매출액 기준으로 1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까지 다양하다.

조사 결과 중견기업들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비롯한 통상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 안보 강화, 신통상 규범 대응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중견기업계는 “중국의 교역 규모를 감안할 때 한국의 IPEF 참여로 야기될 수 있는 무역 환경 불안정성 확대, 인권·환경 규제 강화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외교적 대응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운 글로벌 통상 규범에 국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존 FTA 협정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동시에 중국 관련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노력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미국 수출 관련 중견기업들은 환율 변동 및 환차손에 따른 경영 불안정과 인증 등 기술 규제의 복잡성, 시장 정보 부족 등도 곤란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미국 현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중견기업들은 전문직과 단순 노동직을 막론하고 현지 인력 채용이 가장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외에 코로나19 확산 이후 상승한 물류비 부담, 문화적 차이와 현지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 현지 비자 취득 애로 등도 주된 어려움으로 꼽았다.

중견련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더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선언 등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무역·통상의 균형을 확보해야 하는 정부의 고충을 심분 이해한다”면서 “지혜로운 외교적 노력을 바탕으로 중견기업은 물론 해외에서 분투하는 모든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무역·통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 LX판토스 보호종료 아동 위한 후원 프로그램 진행

LX판토스가 ‘열여덟 어른’으로도 불리는 보호종료아동의 원활한 자립을 돕기 위해 ‘LX판토스 함께가치’ 후원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

14일 LX판토스에 따르면 ‘LX판토스 함께가치’는 보육원 등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 아동들이 만 18세가 돼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시점에 안정적으로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원활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경제적 지원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멘토링 지원 활동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LX판토스는 보호대상 아동들이 보호시설에 머무는 동안 본인의 이름으로 개설한 주택청약통장에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해 향후 입주 계약 시 계약금이나 생활자금 등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 IDEA 2022 디자인 어워드

### 코웨이, ‘노블 정수기’ 등 3개 제품 수상

코웨이가 ‘IDEA 2022 디자인 어워드’에서 디자인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코웨이는 IDEA 2022 디자인 어워드에서 노블 에어케어 솔루션 시리즈(노블 가습기·제습기), 노블 인덕션 프리덤, 노블 정수기가 본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노블 에어케어 솔루션 시리즈와 노블 인덕션 프리덤은 iF 디자인 어워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이어 IDEA 디자인 어워드까지 세계 3대 디자인상을 모두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코웨이의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인 ‘노블’은 지난해 노블 공기청정기가 수상한데 이어 올해 노블 에어케어 솔루션 시리즈와 노블 정수기, 노블 인덕션 프리덤 등 지금까지 출시한 코웨이 노블 컬렉션 전 제품이 IDEA 디자인 어워드를 받았다. /김승호 기자

### 교원 웰스, ‘미니 맥스 공기청정기’ 본상

교원 웰스의 ‘웰스 미니 맥스 공기청정기’(사진)가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 2022에서 제품디자인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14일 교원웰스에 따르면 올해 수상 제품인 웰스 미니 맥스 공기청정기는 지난 3월 출시한 청정면적 6~7평형대의 소형 제품이다.

1~2인 가구 증가와 방마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성인 두뺨 정도인 가로 36cm의 작은 크기의 제품이다. 스탠드와 벽걸이가 모두 가능한 구조로 설계했다. /김승호 기자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